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CONTENTS

- 中 대외투자규정 시행, 기술유출 차단과 반제재 대응 제도화
- 中 유니트리, 73일 만에 IPO 심사 통과... '휴머노이드 로봇 1호주' 도전
- 中 '6대 인프라망' 추진... AI 시대 컴퓨팅 자원도 전기처럼 쓴다
- 포브스 중국 AI TOP50 발표, AI 모델·임바디드 AI가 핵심 축으로 부상
- 中 원자력 설비 102기 확보, 차세대 원자로·SMR·핵융합 개발 가속



본 보고서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가 중국 과학기술계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정리·작성한 자료입니다. 관련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中 대외투자규정 시행, 기술유출 차단과 반제재 대응 제도화

정리 (miouly@kostec.re.kr)

■ 중국 국무원은 '대외투자규정'을 발표하고, 중국 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활동을 관리·지원하기 위한 행정 법규를 마련.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26.6.1)

- (배경)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부처별 관리체계만으로는 투자 확대와 안보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기 어려워짐
 - (해외투자 확대) 중국의 대외직접투자(ODI)는 지속적으로 세계 상위권을 유지
 - * 24년 중국 대외직접투자 유량은 1,9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고, 세계 비중은 11.9%를 기록. 24년 말 기준 중국 투자자는 전 세계 190개국 지역에 해외기업 5.2만 개를 설립했으며, 이 중 '일대일로' 국가에 1.9만 개가 분포함
 - (제도 보완 필요) 기존 대외투자 관리는 상무부의 '해외투자관리방법'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업 해외투자관리방법' 등 부처 규정에 주로 의존
 - (대외 리스크 증가) 미국·유럽의 투자심사, 수출통제, 데이터 규제, 제재 조치가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

〈참고 : 중국 기업 해외진출 주요 리스크 사례〉

분야	주요 사례
반도체 인수 제한	• 중국계 자본인 Canyon Bridge의 미국 Lattice Semiconductor 인수 시도가 2017년 미국 외국인투자심의회(CFIUS)에 의해 중단되었으며, Nexperia의 네덜란드 Nowi 인수도 자산 동결 조치를 받음
데이터·기술	• TikTok은 미국에서 강제 매각 압박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ByteDance의 Lemon8은 2025년 EU로부터 5.3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음
신에너지차	• EU는 2023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종적으로 BYD 등 중국 기업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 가격경쟁력이 약 15% 약화됨

출처 : (25.10.15, 大数跨境) 产业研究 | 中国企业出海风险分析与防范策略研究报告

- (내용) 해외투자 촉진과 투자자 보호를 기본 방향으로 하면서도, **기술·데이터 유출 차단, 해외투자 안전심사, 외국 제재에 대한 반제재 조치**를 함께 담은 관리 규정임 (총 34개 조항 포함)
 - 특히 제13조는 국가가 수출을 금지·제한한 화물, 기술,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해외투자 과정에서 이전·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제23~25조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중국 투자자에게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정부가 조사와 반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외투자규정' 주요 구성 및 내용〉

분야	주요 내용 (34개 조항)
총칙 (적용 범위 및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 대외개방 확대와 해외투자 촉진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중국 내 기업·조직·개인의 대외투자를 국가안보와 발전 이익 관점에서 함께 관리하도록 규정
서비스·지원 (해외 진출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9조) 법률, 금융, 세무, 물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등을 연계한 해외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투자 관리 (기술유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12조, 제14조) 대외투자를 장려·제한·금지 분야로 구분하고, 승인·신고, 정보보고, 자금 등록, 수출입·데이터·외환·사이버보안 등 관련 절차와 연계해 관리 • (제13조) 해외투자 과정에서 국가가 수출을 금지한 화물, 기술, 서비스 및 관련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한 품목의 경우 허가 없이 이전·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인력 해외 파견, 해외 근무 알선, 원격 기술지도, 해외 교육·훈련 등도 금지·제한 기술과 데이터의 우회적 해외 이전 방식으로 보고 규제 대상에 포함
안전심사·준법관리 (투자자 의무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해외투자와 관련 자산·권익의 이전·처분에 대해 해외투자 안전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관과 개인은 안전심사에 협조해야 하며, 심사를 거부·방해할 수 없고, 최종 안전심사 결정을 따라야 함 ** 중국 기업의 해외 인수, 투자, 자산 매각·권익 처분까지 국가안보 관점에서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제16~17조) 투자자와 해외 투자기업의 준법경영, 내부통제,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뇌물·사기·영업비밀 침해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
투자자 보호 (대응·권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22조) 해외투자 위험 경보, 영사보호, 분쟁 해결, 해외 소송·조사 시 자료 제출 관리 등을 통해 투자자와 해외 자산 보호 체계를 마련
반제재·대응조치 (외국 차별조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조) 중국 투자자가 해외에서 투자장벽이나 경영상 장애를 겪을 경우, 상무부가 조사하고 관련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제24조) 외국 정부·국제기구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위반해 중국에 차별적 투자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정부가 투자자와 해외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조치의 제정·결정·집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조직·개인은 '반외국제재법' 등에 따라 반제재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음 • (제25조) 외국 조직·개인이 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시장거래 원칙을 위반해 중국 기업·조직·개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차별적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정부가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관련 조직·개인에 대해 대중국 수출입, 중국 내 투자, 중국 내 조직·개인과의 거래·협력, 관련 인력·제품 운송수단의 입국, 중국 내 근무·체류·거류 자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법적 책임 (위반 행위 제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6~31조) 위반 행위에 대해 투자 중단, 자산 처분, 불법소득 몰수, 투자액 비례 벌금, 책임자 개인 벌금, 1~3년 대외투자 금지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부칙 (적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2조) 중국 투자자가 홍콩·마카오·대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본 규정을 참조해 관리하도록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따라 대만 투자도 홍콩·마카오와 함께 대외투자 관리 범주에 포함되며, 별도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 • (제33~34조) 해외 금융시장 투자와 재투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본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전후 비교) 이번 규정은 부처별 규정 중심의 해외투자 관리체계를 국무원 행정법규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로 끌어올린 것이 핵심임

〈'대외투자규정' 시행 전후 비교〉

비교 항목	기존 제도	'대외투자규정' 시행 후
법규 수준	발개위 11호령, 상무부 3호령 등 부처 규정 중심	국무원령에 따른 행정법규로 격상
관리 대상	중국 내 기업만 적용, 개인 투자 관리 통로는 미비	기업, 조직, 주민 개인까지 포함
관리 범위	승인·신고 등 기본 절차 중심	수출통제,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심사, 반외국제재 등과 연계
반제재 수단	체계적 반제재 수단과 법적 근거 부족	투자장벽 조사 → 반제재 명단 → 경제적 제한 조치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 마련
수출통제 연계	대외투자과 수출통제 관리가 별도로 운영	제13조를 통해 해외투자, 기술인력 파견, 교육· 훈련 등을 통한 통제기술 우회 이전 금지
법적 책임	경고·시정명령 중심으로 처벌 강도 낮음	투자액의 1%~10% 벌금, 개인 책임 2만~10만 위 안, 1~3년 대외투자 금지 등 도입
적용 대상	통일된 적용 기준 부족	제32조에 따라 홍콩·마카오·대만 투자에도 본 규정 준용

출처 : (26.06.02, 君合法评) 国务院对外投资新规重磅出台 : 构建发展与安全新框架 등

- (언론 평가) 미국·한국 언론은 이번 규정을 해외투자 촉진 제도라기보다, 기술·데이터·인재 유출을 막고 외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안보형 대외투자 관리체계'로 해석하고 있음

〈미국·한국 언론의 '대외투자규정' 평가〉

구분	핵심 주장
Reuters	• Meta의 중국 AI 스타트업 Manus 인수 논란 이후, 중국이 전략 자산의 해외 매각과 기술·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분석(26.6.1)
Wall Street Journal	• 중국이 AI 등 핵심 기술을 국가안보 문제로 보고, 서방과의 장기 기술 패권 경쟁에 대비하는 조치로 평가(26.6.1)
Bloomberg	• 미·중 기술 경쟁 속에서 중국이 해외 투자와 자본 흐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기존 분산 규제를 통합한 것으로 해석 (26.6.1)
KBS	• AI·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차단이 핵심이라고 보도 (26.6.2)
뉴스핌	• 중국 자본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면서, 미국 서방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대미 맞불 카드로 평가 (26.6.1)
경향신문	• AI·첨단기술 유출 차단과 외국 제재에 대한 보복 수단을 구체화한 제도로 해석 (26.6.2)

출처 : (26.06.01, Reuters) China Expands Curbs on Foreign Deals, Tech Transfer After Meta-Manus Block 등

참고자료

- ☑ (26.06.01, 中国政府网) 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837号)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606/content_7070756.htm
- ☑ (25.09.08, 中国商务部) 商务部、国家统计局联合发布《2024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https://www.mofcom.gov.cn/tjsj/gwjzhztj/art/2025/art_7cbe0836e40d4ecab3888ed3829cbdf3.html



02 中 유니트리, 73일 만에 IPO 심사 통과... ‘휴머노이드 로봇 1호주’ 도전

우만주 (yumanshu@kostec.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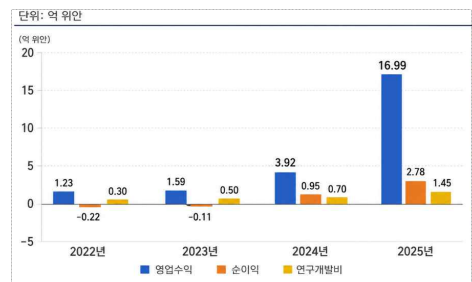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대표기업 유니트리(Unitree)가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창반 IPO 심사를 통과

- (기업 개요) 유니트리는 2016년 설립된 중국의 대표적인 고성능 범용 로봇 기업으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4족 보행 로봇, △로봇 핵심 모듈, △피지컬 AI 기술 개발과 생산에 주력
 - * DeepSeek(AI) 등과 함께 중국 항저우를 대표하는 ‘항저우 6소룡(六小龙)’ 기업으로 불림

〈유니트리 개요〉

본사	항목	내용
	회사명	Unitree Robotics
	설립시기	2016년
	소재지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CEO	왕싱싱(王兴兴) 1990년대생 로봇 공학 배경의 창업자
	시장 점유율	4족 로봇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약 60%
	인력 규모	임직원 500명 이상, 평균 연령 약 30세

〈22~25년 영업수익· R&D 변화 추이〉



- (R&D투자) R&D투자는 2022년 0.30억 위안(약 64억 원), 2023년 0.50억 위안(약 107억 원), 2024년 0.70억 위안(약 150억 원), 2025년 1.45억 위안(약 312억 원)으로 지속 확대
 - * 2025년 기준 R&D투자는 영업수익의 약 8.5% 수준
 - 2026년 1월 31일 기준 유니트리는 총 262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 내 등록 특허는 169건, 해외 특허는 93건으로 집계됨
- (주요 제품) 유니트리는 H 시리즈와 G 시리즈 등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하며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은 5,500대를 넘어 세계 1위를 기록

〈유니트리 주요 휴머노이드 로봇 제품 소개〉

 <p>G1</p> <p>주요 사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키: 약 132cm 무게: 약 35kg 다리 1개당 자유도: 6 팔 1개당 자유도: 5-7 허리 자유도: 3 손 1개당 정교 손 자유도: 6-20 <p>주요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절 가동 범위가 넓고 유연성 우수 AI 기반 모방학습-강화학습 지원 원-위치 하이브리드 제어로 정밀 조작 가능 	 <p>R1</p> <p>주요 사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키: 약 123cm 무게: 약 25kg 다리 1개당 자유도: 6 팔 1개당 자유도: 5 머리 자유도: 2 어리 자유도: 2 <p>주요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량형 바디와 우수한 운동 성능 머리 2자유도로 환경 인식 강화 관절-센서 제어 인터페이스 개방 주요 시뮬레이션 플랫폼 지원 	 <p>H1</p> <p>주요 사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키: 약 180cm 무게: 약 47kg 최고 이동 속도: 5m/s 다리 1개당 자유도: 5 팔 1개당 자유도: 4 <p>주요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급 동적 시스템과 안정적인 보행 성능 속도-힘-기동성-유연성이 우수 복합한 지형과 환경에서도 자율 보행 수행 가능 	 <p>H2</p> <p>주요 사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키: 약 182cm 무게: 약 70kg 다리 1개당 자유도: 6 팔 1개당 자유도: 7 허리 자유도: 3 머리 자유도: 2 <p>주요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한 고동력 동력을 정밀하게 제어 다양한 제동기능을 대형모형 탑재 가능 어리 작업 환경에 활용 가능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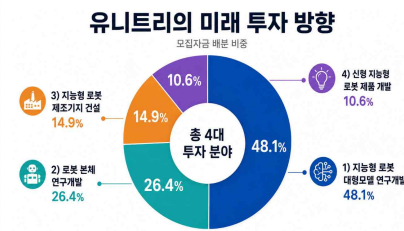
- (기업 상장) 유니트리는 6월 1일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창반(과학기술 혁신기업 전용 주식시장) IPO 심사를 통과했으며,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록·승인 절차를 거쳐 상장을 마무리할 예정
 - (초고속 IPO 심사) 유니트리는 3월 20일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커창반 상장 신청 접수 이후, 6월 1일 심사를 통과하기까지 불과 73일이 소요



- (투자 방향) 이번 IPO를 통해 유니트리에는 42.2억 위안(약 9,06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해당 자금은 △로봇 대형모델, △로봇 본체, △신제품 개발, △제조기지 구축에 투입 계획
- 그중 지능형 로봇 대형모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가장 큰 금액인 20.22억 위안(약 4,345억 원)을 배정해, 향후 로봇의 인지·판단·제어 능력 고도화에 집중

〈유니트리 프로젝트별 투자 규모〉

번호	프로젝트	자금 조달 금액
1	지능형 로봇 대형모델 연구개발	202,245.93만 위안
2	로봇 본체 연구개발	110,973.80만 위안
3	신형 지능형 로봇 제품 개발	44,540.00만 위안
4	지능형 로봇 제조기지 건설	62,411.39만 위안
합계		420,171.12만 위안



* 출처: https://mp.weixin.qq.com/s/kjtGVmHAI14Aejn7VnbYEA?scene=1&click_id=1243473243

〈참고: 유니트리-엔비디아 협력 동향〉

- ▶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6월 1일 타이베이 GTC 행사에서 엔비디아와 유니트리가 협력해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레퍼런스 모델인 'H2 Plus'를 출시한다고 발표

〈타이베이 GTC 행사 사진〉

〈2025년 엔비디아 연례회의 사진〉



- H2 Plus는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 H2에 엔비디아 Jetson Thor 연산 플랫폼과 Isaac GROOT 개발 플랫폼을 결합한 제품임
- Isaac GROOT는 데이터 수집·생성부터 로봇 모델 평가와 배포까지 지원하는 개발 플랫폼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을 단축하는 역할을 함
- ▶ 올해 하반기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이번 협력은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의 핵심이 몸체 성능에서 'AI 두뇌' 성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 출처: <https://mp.weixin.qq.com/s/JhW-ay1RfaDpXbN2gYVItw>

참고자료

- ☞ (26.06.01, 智东西) 刚刚, 宇树IPO闪电过会! 王兴雷军要上岸了
https://mp.weixin.qq.com/s/kjtGVmHAI14Aejn7VnbYEA?scene=1&click_id=1243473243
- ☞ (26.06.02, 闪电新闻) 宇树科技科创板闪电过会, 拟募资42亿冲刺“人形机器人第一股”
<https://mp.weixin.qq.com/s/wtCL2uRgH4Hg1J8VATzFgg>

03 中 ‘6대 인프라망’ 추진…AI 시대 컴퓨팅 자원도 전기처럼 쓴다

우만주 (yumanshu@kostec.re.kr)

■ 중국 정부는 ‘15·5규획’ 개시와 함께 ‘6대 인프라망’ 건설을 핵심 투자 과제로 제시하고 2026년도 약 7조 위안(약 1,504조 원)을 투자할 계획 발표

- (추진 배경) 2026년 중국 양회 기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郑栅洁) 주임은 ‘15·5규획’ 중대공정 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수자원망, ▶신형 전력망, ▶컴퓨팅 인프라망, ▶차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관망, ▶물류망 등 ‘6대 인프라망(六张网)’ 건설을 처음 언급(‘26.3.6)

* 6개 분야는 기존에도 각 부처별 계획과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이를 하나의 국가 정책 패키지로 묶어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



- 이후 중앙정치국 회의(‘26.4.28)에서 6대 인프라망이 국가 차원의 중점 추진 과제로 격상되었고, 국가발개위 정례 브리핑(‘26.5.22)에서 추진 방향과 분야를 제시

- (추진 방향) 컴퓨팅 인프라망은 AI 산업, 차세대 통신망은 디지털경제, 신형 전력망은 에너지 전환, 물류망은 내수 순환, 수자원망은 식량안보, 도시 지하관망은 도시 운영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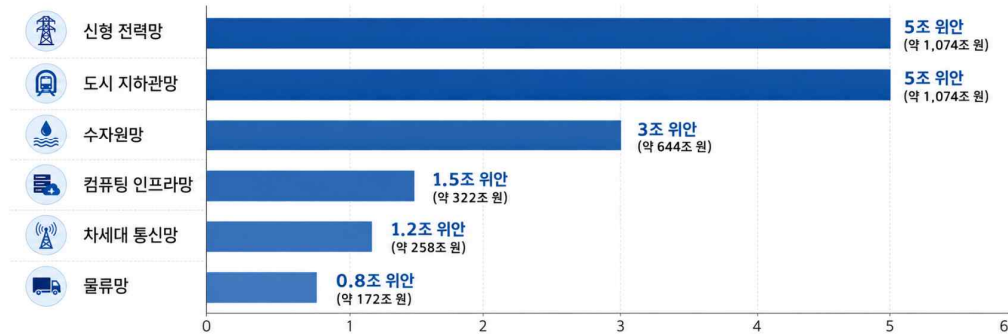
〈6대 인프라망별 주요 추진 내용 및 ‘15·5규획’ 목표〉

구분	추진 방향	‘15·5규획’ 목표
수자원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수북조(南水北调·중국 남부의 풍부한 수자원을 북부 지역으로 보내는 대규모 국가 수자원 배분) 후속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수자원망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농촌 수도물 보급률을 95% 이상으로 유지
신형 전력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고압 송전망 확충, 스마트 그리드 업그레이드, 신형 에너지저장(양수발전·전기화학 저장) 공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을 25% 이상으로 높이고, 지역 간 송전 능력을 2배 확대
컴퓨팅 인프라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컴퓨팅 허브와 컴퓨팅센터 구축, 전국 통합 컴퓨팅망 구축, 컴퓨팅-전력 연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팅 규모를 연평균 20% 확대하며, 서부 지역 컴퓨팅 비중을 40% 이상, 컴퓨팅 이용률을 65% 이상으로 제고
차세대 통신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5G-A 적용, 6G 기술 개발과 시범 검증, 저궤도 위성 인터넷 구축, 기가급 광섬유 통신망 고도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6G 기술 검증을 완료하며, 위성인터넷 글로벌 커버리지를 추진하고, 기가급 인터넷 이용자 보급률을 80% 이상으로 제고
도시 지하관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난방·전력관 교체, 도시 침수 대응시설 보강, 스마트 관망 관리시스템 구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 관망 정비율 100%, 도시 침수 취약지역의 기본 해소를 목표로 추진
물류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물류 허브 조성, 도시·농촌 냉장·냉동 물류망 구축, 국경 간 물류 통로 확충, 스마트 물류 플랫폼과 농촌 배송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물류비용의 GDP 대비 비중을 13% 이하로 낮추고, 농촌 물류망 커버리지를 100%로 확대



- **(투자 규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郑栅洁) 주임은 2026년 ‘6대 인프라망’ 및 관련 중점 분야 투자 규모가 7조 위안(약 1,504조 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더방증권(德邦证券) 사는 ‘15·5규획’ 기간 6대 인프라망 건설의 총투자 규모가 20조~25조 위안(약 4,297조~5,37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 연평균 투자 규모는 4조~5조 위안(약 859조~1,074조 원)수준으로 예상

‘15·5규획’ 기간 ‘6대 인프라망’ 투자 규모 추정



특히 컴퓨팅 인프라망은 6대 인프라망 중 가장 주목되는 신형 인프라로, 전국의 컴퓨팅 자원을 연결해 기업과 개인이 전기·수도처럼 필요한 만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

- **(수요)** 중국의 일 평균 토큰(Token) 호출량은 2024년 초 1,000억 회 수준에서 2026년 3월 140조 회로 늘어나 2년 만에 1,000배 이상 증가
 - 2025년 말 기준 중국 내 구축된 고품질 데이터셋은 10만 개 이상, 총규모는 890PB 이상으로, 방대한 데이터 저장·처리·활용을 위한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황)** 중국은 2022년부터 ‘동수서산(东数西算)’ 사업을 추진하며 컴퓨팅 인프라망의 기본 틀 마련
 - 현재 징진지, 장강삼각주, 웨강아오 대만구, 청두·충칭, 네이멍구, 구이저우, 간쑤, 닝샤 8대 국가 컴퓨팅 허브를 중심으로 10개 국가 데이터센터 클러스터가 배치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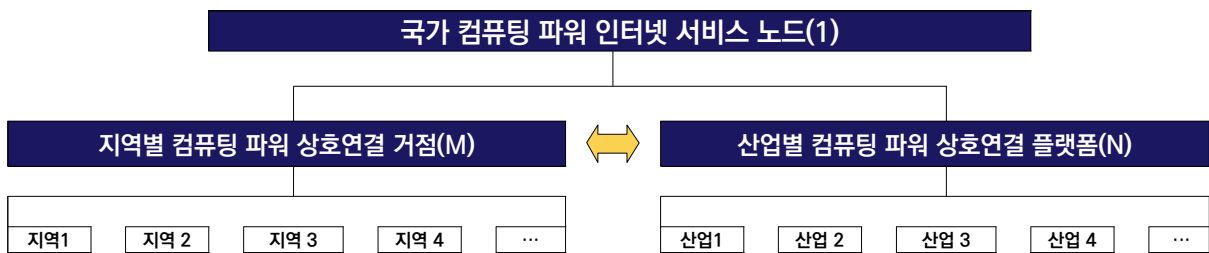
동수서산(东数西算) 8대 국가 컴퓨팅 허브 및 10개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중국 전국 컴퓨팅 인프라 배치도



- 2026년 3월 말 기준 중국의 컴퓨팅 총규모는 188만 PFLOPS(FP16 기준)에 달했으며 이 중 8대 국가 컴퓨팅 허브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
- 국가 차원의 컴퓨팅 자원 모니터링·조정 플랫폼은 현재 137만 PFLOPS 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연결했으며, 이는 중국 전체 컴퓨팅 자원의 약 72%에 해당
- (추진 방향) '동수서산' 사업이 "컴퓨팅 인프라를 어디에 구축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컴퓨팅 인프라망은 "구축된 컴퓨팅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둬
- (컴퓨팅 허브 집중) 신규 대형 데이터센터를 국가 컴퓨팅 허브 중심으로 모아 지역별 중복 투자를 줄이고, '컴퓨팅 고립섬'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 (전국 통합 컴퓨팅망 구축) '1+M+N' 구조의 상호연결한 '컴퓨팅 파워 인터넷'을 구축
 - * '1+M+N' 구조는 전국 컴퓨팅 자원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단계별 운영 체계임
 - **'1'은 국가 단위의 컴퓨팅 자원 통합 서비스 노드, 'M'은 지역별 컴퓨팅 자원 연계 거점, 'N'은 에너지·제조·금융·행정·AI 등 산업별 컴퓨팅 자원 플랫폼을 의미함

< '1+M+N' 구조 >



- (컴퓨팅-전력 연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전력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컴퓨팅 업무를 배분하는 컴퓨팅-전력 연계를 강화

참고자료

- ☑ (26.05.30, 巢夫智库) 国家推进“六张网”建设政策深度解读
https://mp.weixin.qq.com/s/qSsX3NTmhFpFY_MQyZ1Cxxw
- ☑ (26.05.26, 国信家办) 深度洞察 | “六张网”7万亿投资：重塑基建与内需增长逻辑
<https://mp.weixin.qq.com/s/6yVxdV8hAL-Qv74Lr8L3VA>
- ☑ (26.05.19, 国豫财信) 算力这张网，比电网难建十倍
<https://mp.weixin.qq.com/s/uVsZLPL84miji0wcP2-toA>
- ☑ (26.05.29, 并济科技) 从“东数西算”到“算力网”：国家为何把算力当“水电气”建？
<https://mp.weixin.qq.com/s/PdJmmZKrYaoeibpANyT-lA>
- ☑ (26.05.31, 金证研) AI基建赛道跑出“加速度” 算力指数近一年涨近两倍
<https://mp.weixin.qq.com/s/CquGnd66IFKvUJwf01h4WA>

04 포브스 중국 AI TOP50 발표, AI 모델·임바디드 시가 핵심 축으로 부상

정리 (miouly@kostec.re.kr)

■ 포브스 중국은 '2026 중국 인공지능 과학기술기업 TOP50'을 발표했으며, 선정 기업은 AI 모델, 임바디드 AI·로봇, AI 반도체 등 20여 개 분야를 포괄하고, 베이징이 21개사로 최다 선정됨

* 이번 평가는 중국의 'AI+' 전략 흐름에 맞춰 AI 기술력, 산업 적용성, 글로벌 확장성, 생태계 기여도 등을 종합 반영한 것으로, 대형모델, AI 반도체, 임바디드 AI·로봇, 기업용 AI, AI 의료, AI 교육, AI 제조 등 20여 개 분야를 포괄함

- **(산업 구조)** 중국 AI 기업은 기술 기반 기업 비중이 높고, 응용 분야는 의료·교육·제조·마케팅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기술 지향형 기업은 61.2%, 응용 지향형 기업은 34.1%를 차지하며, 기술층과 응용층의 비중은 약 6:4 수준으로 나타남
 - * 기술 지향형 기업은 대형모델, 임바디드 AI, AI 반도체, AI for Science, 기업용 AI, AI 에이전트 등을 포함, 응용 지향형 기업은 AI 의료, AI 교육, AI 마케팅, 지능형 교통, AI 제조 등 실제 산업·서비스 적용 분야에 분포
- **(기술 분야)** 임바디드 AI·로봇과 대형모델이 핵심 분야를 형성하고, AI 마케팅·의료·기업용 AI가 중간층을 이루며, AI 반도체·AI for Science 등 신흥 분야도 함께 성장하고 있음
 - 임바디드 AI·로봇은 13개사(15.3%), 대형모델은 11개사(12.9%)로 전체의 28.2%를 차지함
 - AI 마케팅·콘텐츠는 9개사, AI 의료는 8개사, 기업용 AI·AI 에이전트는 8개사로 집계됨
- **(지역 분포)** 베이징이 가장 많은 기업을 배출했으며, 상하이·선전·칭두·항저우가 뒤를 이음
 - 베이징은 총 21개 기업이 선정되어 전체의 24.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함
 - 상하이와 선전은 각각 12개 기업(14.0%)이 선정되었으나, 상하이는 하드테크, 선전은 제조·응용 분야 중심의 특징을 보임
 - 칭두는 11개 기업(12.8%)이 선정되었으며, AI 교육, AI 에이전트 등 응용형 기업 비중이 높고, 항저우는 9개 기업(10.5%)이 선정되었으며, 대형모델 분야에서 강세를 보임

〈중국 AI 기업 기술 분야별 분포〉



〈중국 AI 기업 지역별 분포〉





〈2026 포브스 중국 AI 과학기술기업 TOP50 분야별 주요 기업〉*

분야	기업명	지역	분야	기업명	지역
대형·기초 모델	딥시크(DeepSeek)	항저우	임바디드 AI·로봇	유니트리(Unitree)	항저우
	바이트댄스 화산엔진	베이징		유비테크(UBTECH)	선전
	미니맥스(MiniMax)	상하이		메가로보(MegaRobo)	쑤저우
	알리바바 통이첸원(Qwen)	항저우		AgiBot	상하이
	문샷 AI Kimi	베이징		싱둥지위안(星动纪元)	베이징
	즈푸AI GLM	베이징		토프스타(拓斯达)	둥관
	스텝펀(StepFun)	상하이		웨이이즈짜오(微亿智造)	창저우
	딥시(滴普科技)	베이징		쯔벤량 로봇(自变量机器人)	선전
	링이완우(01.AI)	베이징		푸바오 인텔리전스(孚宝智能)	항저우
	즈후이옌(智慧眼)	창사	신스치 무인차(Neolix)	베이징	
AI 반도체·AI 인프라	Biren Technology	상하이	AI 플랫폼·AI 에이전트	밍투커지(明途科技)	청두
	캠브리콘(Cambricon)	베이징		중관춘 커진(中关村科金)	베이징
	무어스레드(Moore Threads)	베이징		중커원거(中科闻歌)	베이징
	메타엑스(沐曦股份)	상하이		차이신주식(彩讯股份)	베이징
	ZTE(중싱통신)	선전	성통커지(声通科技)	우한	
AI 의료	위닝헬스(卫宁健康)	상하이	AI 마케팅	DCG 수찬그룹	우한
	푸바오 인텔리전스(孚宝智能)	항저우		텐센트뮤직 TME	선전
AI for Science	언허과기(恩和科技)	항저우	AI 하드웨어	iFLYTEK	허페이
	추나과기(触纳科技)	베이징		Rokid	항저우
자율주행	PCI테크놀로지	광저우	AI 제조	Alnovation	칭다오
	시디(CIDI, 希迪智驾)	창사		샤오스과기(小视科技)	난징

* 포브스 선정 기업 중 주요 사례를 분야별로 재정리한 것으로, 순위와는 무관함

참고자료

☑ (26.05.25, 数据观) 寒武纪、DeepSeek上榜！福布斯发布2026中国人工智能科技企业TOP50
<https://mp.weixin.qq.com/s/7kLYBf5LWQBKqkfh0Dhb-A>

05 中 원자력 설비 102기 확보, 차세대 원자로·SMR·핵융합 개발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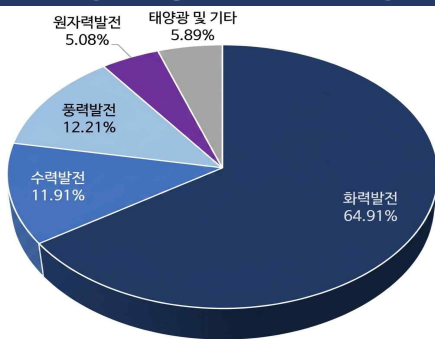
정리 (miouly@kostec.re.kr)

■ 중국과학기술협회 산하 학술지 ‘과기 도보(科技导报)’ 게재된 ‘2025년 글로벌 원자력 과학기술 진전’에 따르면, 중국은 가동·건설·승인된 원자력발전 설비 총 102기를 확보하며 원자력 설비 확대를 지속(2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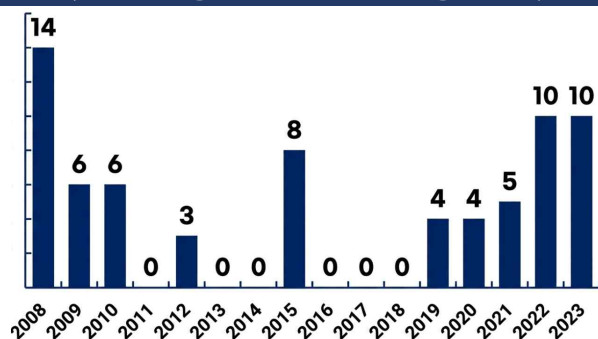
- 25년 4월 기준 중국의 가동·건설·승인된 원자력발전 설비는 총 102기, 설비용량은 1.13억kW에 달하며, 25년 상반기 중국 원자력 누적 발전량은 2,300.86억kWh로 전체 발전량의 5.08%를 차지
- * 2026년 2월 말 기준 전 세계 가동 원자력발전 설비는 413기, 총 설비용량은 377GW이며, 건설 중 설비는 66기, 70GW임. 주요국별로는 미국 94기·96.95GW, 영국 9기·588만kW, 일본 27기·26.2GW임

- 중국 국무원 25년 4월 총 2,000억 위안(약 45조 원) 규모의 원자력발전 프로젝트 5건(10기) 투자를 승인

〈2025년 상반기 중국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08~25년 중국 원자력발전 설비 승인 추이〉



■ (기술) 중국 원자력 기술은 대형 원자력발전 고도화와 함께 제4세대 원자로, 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 (제4세대 원자로) 기존 원자로보다 안전성, 자원 활용도, 사용후핵연료 관리 능력을 높이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이 추진 중임
- 중국의 고온가스로나 토륨 기반 용융염 실험로, 러시아의 납냉각 고속로, 인도의 고속증식로, 미국의 실증형 원자로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됨

〈참고 : 주요국 제4세대 원자로 실증·운영 현황〉

국가·지역	원자로명	기술 방식	의미 및 진행 상황
중국	HTR-PM (운영 중)	고온가스로	• 세계 최초로 상업 운전에 들어간 제4세대 원전으로, 핵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에 필요한 750℃급 고온 열원을 제공
	TMSR-LF1 (운영 중)	용융염로	• 세계 최초로 운영 중인 토륨 기반 용융염 실험로로, 액체연료 용융염로의 물리적 특성과 토륨-우라늄 연료순환 기술 검증을 목표로 함
미국	Hermes (건설 중)	불소염냉각 고온로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건설 허가를 받은 미국 최초의 제4세대 실증로로, 용융염 냉각 기술 검증을 위한 플랫폼



국가·지역	원자로명	기술 방식	의미 및 진행 상황
러시아	BREST-OD-300 (건설 중)	납냉각 고속로	• 국제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포럼(GIF)의 납냉각 고속로 기술을 실증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높은 고유 안전성을 목표로 설계
유럽	PFBR (건설 중)	나트륨냉각 고속로	• 인도의 3단계 원자력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원자로로, 플루토늄 자원 활용과 증식 기술 확보의 주요 단계
인도	ALFRED (추진 중)	납냉각 고속로	• 유럽의 납냉각 고속로 실증 프로젝트로, 해당 기술의 안전성과 실현 가능성 검증을 목표로 함

● (소형모듈원자로, SMR*) 중국은 ACP100, 옌룽(DHR-400) 저온 난방로, NHR200-II 등 12종의 소형 원자로 기술을 개발 중임

* SMR은 대형 원자력발전 설비보다 규모가 작고, 공장 제작과 모듈 조립이 가능해 전력망이 작은 지역, 산업단지, 선박, 우주, 지역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함

- 2025년 OECD 원자력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SMR 설계는 127종으로 확대되었고, 이 중 51종은 사전 인허가 또는 정식 인허가 심사 단계에 진입함

● (핵융합) 중국은 중국 핵융합공학시험로(CFETR)를 2035년 전후 건설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5년부터 핵심 부품 사전 연구와 제작 단계에 진입함

- 중국의 EAST 장치는 2025년 1월 1억℃ 플라즈마를 1,066초 유지했으며, 중국환류 3호(HL-3)는 2025년 3월 이온온도 1.17억℃, 전자온도 1.6억℃를 동시에 달성함

〈참고 : 중국 원자력 기술 발전 배경 및 단계별 주요 내용〉

▶ 중국은 원자력을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분야로 육성하고 있으며, 기술 도입에서 국산화·자주혁신 단계로 발전

- 중국은 1955년 원자력 개발을 시작한 이후, 기술 탐색기 → 기술 도입기 → 자주혁신기를 거치며 원자력 기술의 국산화와 독자 개발 역량을 확대해 옴
- 특히 '화룡(华龙) 1호', '링룽(玲瓏) 1호' 등 독자 원전 기술을 중심으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추진 중

기술 탐색기 (1955~1990년)	기술 도입기 (1991~2010년)	자주 혁신기 (2011년~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년: 원자력 개발 방침 확정, 핵산업 본격 착수 • '70년: '728공정' 가동 → '91년 친산(秦山) 원전 상업 운전 • '87년: 프랑스 M310 기술 도입 → 발전량 70%는 홍콩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 친산 2기 원전에서 자체 기술 적용 → 60만 kW급 국산화 실현 • '06년: 미국 3세대 원전기술 도입 → 산동·저장에 시범 적용 • '09년: 중국광핵(CGN) 독자 기술 개발, 국산화율 1% → 85%로 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화룡 1호'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심사 통과 • '24년: 세계 최초 육지 상용 소형모듈원자로 '링룽 1호' 조립 • '25년: 총 원자력 설비 1.13억 kW로 미국 추월, 세계 1위 달성

출처 : (24.11.11, 中国国史网) 新中国核电技术发展历程

참고자료

☞ (26.05.26, 科技导报) 多元赋能 智领未来 : 2025全球核能科技进展

<https://mp.weixin.qq.com/s/ip23YYBp-T5DwnC6bV42Hw>

최근 이슈리포트 발간 리스트

순번	제목	시기
1	'14·5규획'과 중국 과학기술 성과 - 정책, 생태계 및 혁신체제로 본 중국의 과기혁신 성과 -	26.05.12
2	제15차 5개년 규획과 중국의 산업·과학기술 재편	26.03.21
3	양회(兩會)에서 제시된 2026년 중국 과기혁신 과제	26.03.21
4	제15차 5개년 규획으로 본 중국의 전략 대전환 - 중국은 다음 5년을 어떻게 설계했는가 -	26.03.06
5	빅사이언스로 보는 중국 과학기술 자립의 엔진 - 10대 중추 인프라 구축 동향을 중심으로 -	26.02.12
6	중국 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전주기 파이프라인 : 조기 영재교육 → 대학 엘리트 트랙 → 해외 인재 유치	26.02.09
7	중국은 무엇을 성과로 제시하는가 - 관용 매체 발표로 본 과학기술 혁신 성과 -	26.01.23
8	중국 AI와 휴머노이드 산업의 현재 좌표와 기술은? - 산업별 현황·지역 분포·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	26.01.23
9	2025 주요 4개국 과학기술 지표 ③ : 연구개발 성과	25.11.07
10	중국 '제14차 5개년 규획'의 성과와 전망	25.10.24
11	2025 주요 4개국 과학기술 지표 ② : R&D 인력	25.10.24
12	중국 R&D 생태계 : 양적 팽창에서 질적 도약으로	25.10.24
13	중국 전자상거래의 글로벌라이제이션 -Temu·SHEIN·AliExpress·TikTok Shop을 중심으로-	25.09.19
14	2025 주요 4개국 과학기술 지표(R&D예산)	25.09.09
15	미·중 경쟁의 새 전장,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술혁신	25.09.02
16	중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국제 비교	25.08.22
17	2021~2025년 중국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지형변화	25.07.31
18	딥시크 이후, 진격의 중국 AI	25.07.30
19	기술패권 흔들리나...中, AI에서 우주까지 美 맹추격	25.06.20
20	중국 해외 고급 인재 유치 정책과 10년의 성과	25.06.17

주간동향 기사 분류 체계

중국 14.5 계획 (중국 국무원, '21.3월)	중국 6대 미래 산업 (중국 공신부 등 7개 부처, '24.1월)		한국 12대 전략기술 (한국 과기정통부, '23.12월)
1. 차세대 인공지능 2. 직접회로 3. 양자정보 4. 뇌과학 및 뇌모방 연구 5. DNA 및 바이오 기술 6. 임상 의학 및 건강 7. 심공, 심지 및 극지	1. 미래제조	스마트 제조, 바이오 제조, 나노 제조, 레이저 제조, 순환 제조, 공유 제조, 스마트 제어/센싱, 산업 인터넷, 메타버스 등	1. 인공지능 2. 첨단 로봇/제조 3. 차세대 통신 4. 반도체/디스플레이 5. 사이버 보안 6. 양자 7. 첨단 모빌리티 8. 수소 9. 이차전지 10. 차세대 원자력 11. 우주항공/해양 12. 첨단 바이오
	2. 미래정보	차세대 이동통신, 위성 인터넷 양자정보, 양자/광자 컴퓨팅 대규모 언어 모델 등	
	3. 미래재료	비철금속, 화학공업, 비금속 무기재료, 고성능 탄소섬유, 첨단반도체, 초전도 소재 등	
	4. 미래에너지	원자력, 핵융합, 수소에너지, 바이오매스, 미래 에너지 장비, 태양전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등	
	5. 미래공간	유인 우주비행, 달탐사, 위성항법, 도심항공교통 심해작업 설비, 극지자원 탐사, 도시 지하공간 개발 등	
	6. 미래건강	세포 유전자기술, 합성생물학, 바이오육종, 5G/6G, 메타버스, AI 활용 의료서비스, 디지털 트윈,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CHINA
SCIENCE

KOREA-CHINA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 발 행 일 | 2026. 06. 08.

| 발행기관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 발 행 처 | 주소 : 북경시 조양구 주선교로 갑12호
전자성과기빌딩 1308호(100015)
TEL : 86)10-6410-7876/7886
<http://www.kostec.re.kr>

